



이준호 /JYP엔터테인먼트 제공

“결말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

이준호 ‘웃소매 붉은 끝동’ 이산 연기 “충만한 눈빛에 불안감 지닌 인물 표현”

“리허설 때 대사를 맞춰보는데 막힌다는 느낌이 솔솔 넘어가더라고요. 참 행복했어요.”, “촬영을 한 8개월간 이보다 행복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가수 겸 배우 이준호(31)는 지난 3일 진행된 ‘웃소매 붉은 끝동’ 화상 인터뷰에서 종영 소감을 묻는 말에 ‘행복’이란 단어를 여러 차례 언급했다.

올해로 10년 차 배우가 된 그에게 뜻깊은 작품이 아닐 수 없다.

2013년 영화 ‘감시자들’로 연기에 데뷔한 그는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해왔지만, 대중들에게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해 군 제대 후 복귀작으로 택한 ‘웃소매 붉은 끝동’으로 배우로서 입지를 굳히게 됐다.

성군이 되고자 했던 이산 정조와 주체적인 삶을 살고자 한 궁녀 성덕익의 사랑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는 5%대 시청률로 출발해 자체 최고 시청률인 17.4%로 막을 내렸다.

수년간 고전을 면치 못했던 MBC 드라

마에서 모처럼 나온 흥행작으로 이산을 연기한 이준호는 단숨에 ‘2022 MBC 연기대상’ 대상 후보에 올랐다. 수상은 ‘김은태’의 남궁민에게 돌아갔지만, 이준호는 미니시리즈 부문 남자 최우수연기상과 베스트 커플상으로 2관왕을 차지했다.

이준호는 “대상 후보로 거론된 것만으로도 영광스러웠다”며 “(남궁민과) 4년 전 드라마 ‘김과장’을 하면서 베스트 커플상을 받았는데,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것 같아서 뿌듯했다”고 말했다.

기존 사극 드라마가 만들어 둔 조선 22대 임금, 정조 이산의 이미지가 워낙 강하다 보니 ‘웃소매 붉은 끝동’이 어떻게 청춘 로맨스에 구현할지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2007~2008년 방송된 드라마 ‘이산’은 35%대 시청률을 기록하며 큰 사랑을 받았고, 당시 이산을 연기한 이서진은 명석한 두뇌와 인간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가진 성군을 잘 그려냈다는 호평을 받았다.

이준호는 “사실 예전에 ‘이산’을 보지 않아서 오히려 부담감은 크지 않았다”며 “연기를 할 때 내 방식대로, 내 느낌대로 이산을 새롭게 해석하면 된다고 생각했고, 최대한 그 인물이 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원래 왼손잡이인 그는 오른손잡이인 왕을 연기하고자 오른손으로 밥을 먹고, 붓글씨를 쓰는 연습을 했다고 했다.

“위엄이 있으면서도 충만한 눈빛을 가진 캐릭터를 만들고 싶었어요. 왕세손이지만,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위협 속에 살아가는 불안함을 표현하고 싶었죠.”

이렇게 수많은 고민 끝에 탄생한 이준호의 이산은 맑고 바른 느낌으로 사극 청춘 로맨스에 잘 녹아들었다.

이준호는 “(기존의 이산과는) 다른 색다른 인물로 표현을 잘했다고 생각하고 싶다”고 말했다.

“아직도 이상하게 적적하고 슬퍼요. 그냥 ‘그들(이산과 덕익)은 행복했을까’란 생각이 자주 떠오르고, 그래서 계속 마음이 상송생송해요. 저는 결말을 해피엔딩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면) 모두 죽은 뒤에야 만나는 슬픈 결말이어서 계속 먹먹함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연합뉴스

턴즈 ‘스컬파’ 우승…시청률 2.3% 종영

‘비매너 논란’ 클루씨 5위 “반성 계기 됐다” 눈물

댄스크루 턴즈가 ‘스트릿댄스 걸스 파이터’ (이하 ‘스컬파’)의 우승을 차지했다.

5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밤 10시 방송된 엠넷 댄스 경연 프로그램 ‘스컬파’의 최종회 시청률은 2.3%(비지상파 유료가구)를 기록했다.

방송에서는 결승 무대에 진출한 뉴니온, 플로어, 브랜뉴치일드, 클루씨, 미스 폴리, 턴즈 등 6개 크루의 무대가 펼쳐졌다.

사전 첼린지 미션부터 1·2라운드 심사위원 평균 점수까지 모두 1위를 차지한 팀 YGX의 턴즈가 우승하면서 1,000만원의 상금을 가져갔다.

턴즈 리더 조나인은 “이 시간 이후로도

정말 더 새로운 모습, 더 도전적인 모습이 보여드릴 테니 기대해 달라”고 우승 소감을 밝혔다.

또 멘토로 함께해준 팀 YGX에게 “마스터님들의 피드백을 진심으로 수용해려고 노력한 덕분에 이번 좋은 무대가 나왔던 것 같다”고 감사를 표했다.

YGX의 리더 리정은 “결과를 떠나서 매 순간 정말 좋은 무대로 증명했다고 생각해서 자랑스럽고 함께해서 영광”이라고 화답했다.

댄스 열풍을 일으킨 엠넷 댄스 서바이벌 프로그램 ‘스트릿 우먼 파이터’ (이하 ‘스우파’)의 뒤를 이어 방송된 ‘스컬파’는 패기 넘치는 여고생들의 경쟁으로 매 회 화제를 모았다.

하지만 뜨거운 화제만큼 논란도 컸다. 팀 라치카의 클루씨는 결승 진출을 놓고 펼친 스쿼드와의 대결에서 서로의 안무를 바꾸는 구간에 다소 우스꽝스러운 안무를 제시하면서 ‘비매너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클루씨뿐 아니라 멘토로 활약했던 라치카, 출연자 부모에게까지 악성댓글이 달리기도 했으며, 엠넷 또한 ‘악마의 편집’이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클루씨의 리더 이재민은 5위에 오른 소감을 밝히면서 “저희도 이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고 한편으로는 저희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반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며 눈물을 보였다.

한편 엠넷은 방송 말미에 MC 강다니엘과 함께 출연된 ‘스트릿 맨 파이터’를 선보이겠다고 예고했다. /연합뉴스

BTS 뷁 ‘크리스마스 트리’ 빌보드 핫100 진입

한국 OST 최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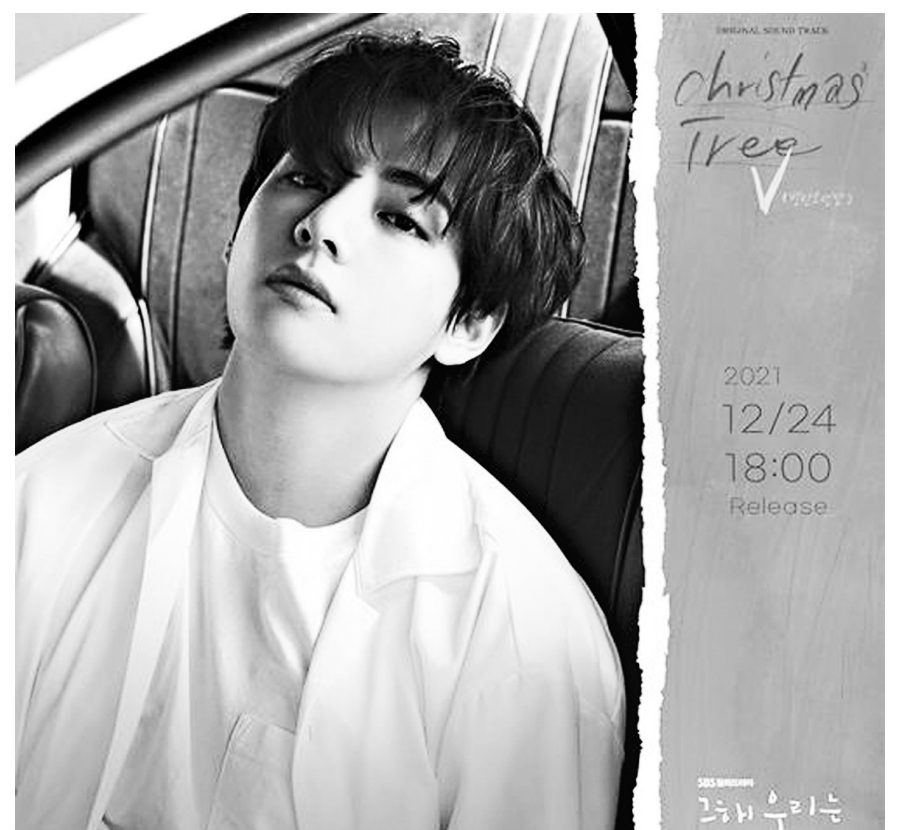
그들 방탄소년단의 뷁가 발표한 SBS TV 월화극 ‘그 해 우리는’ OST ‘크리스마스 트리’ (Christmas Tree)가 한국 드라마 OST 가운데 처음으로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핫 100’ 진입에 성공했다.

5일(한국시간) 빌보드 공식 트위터에 따르면 ‘크리스마스 트리’는 이번 주 핫 100 차트에 79위로 처음 진입했다.

뷔는 이로써 방탄소년단에서 제이홉 ‘치킨 누들 수프’ (Chicken Noodle Soup), 슈가 ‘대취타’·‘결 오브 마이 드림스’ (Girl of My Dreams)에 이어 세 번째로 빌보드 싱글 차트에 솔로로 이름을 올린 멤버가 됐다.

‘크리스마스 트리’는 드라마 첫 화부터 최용(최우식 분)의 작업실에서 나오는 LP곡으로 등장했고, 드라마 곳곳에서 극의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다.

/연합뉴스



뷔 ‘크리스마스 트리’ /모스트콘텐츠 제공

임시완·고아성 국제청 직원 변신

MBC 새 금토드라마 ‘트레이서’ 내일 첫 방송

배우 임시완과 고아성이 요리조리 범행을 피해 세금을 미납한 자들의 돈을 추적하는 국제청 직원으로 변신한다.

임시완과 고아성은 지난 4일 열린 MBC 새 금토드라마 ‘트레이서’ 온라인 제작발표회에서 작품에 대해 “국제청이 배경이지만, 어렵지 않고 유쾌하고 통쾌하다”고 입을 모았다.

연출을 맡은 이승연 PD 역시 “개성 만점의 독특한 인물들이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나쁜 놈과 그 뒤에 숨은 나쁜 돈을 찾아내는 유쾌한 추적극”이라고 작품을 소개했다.

‘트레이서’는 국제청 조세 5국이 ‘나쁜 돈’을 추적하는 과정을 그린다. 임시완은 뻔뻔한 성격의 지닌 조세 5국의 유능한 팀장 황동주 역을, 고아성은 정면 돌파가 특기인 팀원 서혜영 역을 맡았다.

드라마 ‘미생’ (2014)에서 인턴 장그래 역으로 사랑 받았던 임시완은 “그때(‘미생’)는 말단 사원이라 지시를 따르고, 명령에 움직이는 역할이었는데 지금은 명령하고, 지시하는 역할”이라며 “직급이 올라서 좋아했는데, 지시하다 보니 외워야 할 대사가 많아졌다”고 웃었다.

그는 “우리 머릿속에 있는 국제청에 대한 고정관념을 탈피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며 “동주 캐릭터는 말과 행동이 재기발랄한데, 그래서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시원함이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예고편에서 나왔듯 망치로 (벽을 깨고) 돈을 찾는 과정 등 유쾌하고, 통쾌하게 세금을 거둬들이는 모습이 나온다”고 귀띔했다.

영화 ‘삼진그룹 영화토익반’ (2020)에서 회사가 은폐하려는 사건을 들춰내려는

여사원 이지영 역으로 열연한 고아성은 “직장인 여성들을 구현하는 재미가 있다”며 “서혜영은 (미납한 세금인) 나쁜 돈을 찾으러 가는 역할인데, 통쾌함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청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어도 편하게 다가갈 이야기기길 바랐다”며 “배우들의 케미(공합·케미스트리)나 사건의 흐름이 아주 어렵지 않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 사람과 함께 박용우가 조세국 에이전트 활약했으나 현재는 일을 안 하는 것이 일인 조세 5국 과장 오영 역으로 호흡을 맞춘다.

박용우는 “오영 캐릭터는 현실에서 직장생활 하는 분들이 공감할 부분도 있고, 그걸 넘어선 어른의 성장 이야기를 표현할 수 있는 역할”이라며 “국제청을 소재로 하지만 절대 어렵지 않고, 건박하고, 흥미로운 드라마”라고 말했다.

오는 7일 밤 9시 50분 첫 방송.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V) 플랫폼 웨이브에서 동시 공개. /연합뉴스

설 연휴 극장가는 한국 영화 대결...정치 vs 모험

영화 ‘킹메이커’·‘해적:도깨비 깃발’ 오는 26일 개봉

설 연휴 극장가에서는 한국 영화 두 편이 대결을 펼치게 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선거 전략가 엄창룡을 모티브로 한 정치 드라마 ‘킹메이커’와 해양 어드벤처 ‘해적:도깨비 깃발’이 설 연휴를 앞두고 오는 26일 동시에 개봉한다.

‘킹메이커’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정치인 김윤범(설

경구 분)과 존재도 이름도 숨겨진 선거 전략가 서창대(이선군)가 치열한 선거판에 뛰어들며 시작되는 이야기를 그린다.

사극 액션 어드벤처 ‘해적:도깨비 깃발’은 2014년 여름 개봉해 800만 관객을 동원한 ‘해적:바다로 간 산적’의 후속작이다.

강하늘과 한효주가 의적단 두목 무

치와 해적 단주 해랑 역을 맡아 고려 왕실의 마지막 보물을 차지하기 위한 모험을 펼친다. 여기에 이광수, 권상우, 오세훈(엑소), 채수빈 등이 함께한다.

연출을 맡은 김정훈 감독은 “전편이 성공했기에 부담감이 없었다고 말하면 거짓말”이라며 “액션과 어드벤처를 더 사실적으로 담아 관객들이 관심이 아닌 체험을 할 수 있게 촬영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오늘의 운세 김도완 선생 제공 02-766-1818 www.esazu.com

1월 6일 (음력 12월 4일)



48년생 집안이 경사가 있겠다. 60년생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72년생 용이 여의주를 얻는 길이다. 84년생 힘들고 골치 아픈 일이 생긴다.



49년생 지인 간의 금전거래는 절대 금물이다. 61년생 세상에 믿을 놈이 하나도 없다. 73년생 하늘님의 보살핌이 있겠다. 85년생 노력한 보람을 느낀다.



50년생 체면과 자존심을 지켜라. 62년생 나를 힘들게 했던 일이 해소된다. 74년생 선행이 난처한 일의 씨앗이 될 수 있다. 86년생 이상의 유혹이 있겠다.



51년생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63년생 준비된 자만이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다. 75년생 하면 된다. 87년생 일단 결정된 것들은 절대 뒤돌아보지 마라.



52년생 약간의 재물 손실이 있겠다. 64년생 똥은 무서워서가 아니라 더러워서 피하는 것이다. 76년생 일찍 귀가하라. 88년생 지금은 몸을 사려야 할 때이다.



41년생 모든 일이 내게 유리하게 진행된다. 53년생 웃으면 복이 찾아온다. 65년생 남도 보고 똥도 따는 날이다. 77년생 모든 의혹이 한순간에 사라진다.



42년생 천문, 지리, 인화중 인화가 제일이다. 54년생 소원이 성취된다. 66년생 몸은 가볍고 마음은 편안하다. 78년생 눈앞이 캄캄하니 걱정이 태산이다.



43년생 충분한 시간이 흘러야 해결된다. 55년생 업무적으로 좋은 인연을 만난다. 67년생 직장에서 인정받고 승진한다. 79년생 가족의 지지 없이는 어렵다.



44년생 불청객이 찾아온다. 56년생 아픈 만큼 성숙해질 것이다. 68년생 만일 투자 계획이 있다면 재검토하라. 80년생 뜻은 장대하나 현실은 실망스럽다.



45년생 내내심의 한계를 경험한다. 57년생 허영심이 지나치면 험한 꼴을 당한다. 69년생 사소한 일로 이웃과 다투지 마라. 81년생 원하면 이루어진다.



46년생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58년생 세상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70년생 절치러 준비하면 승산이 있다. 82년생 내 일이 아니면 가능한 잠깐 말라.



47년생 때로는 카리스마가 필요하다. 59년생 시련은 가고 행복이 찾아온다. 71년생 행운의 문이 활짝 열린다. 83년생 과정은 힘들지만 결과는 반드시 좋다.